

“日本の50代が前へ出て韓・日関係を改善させなくては”

“大韓赤十字社に対し対北支援金 5,000 万ウォン出した日本の企業家 小松氏”

日本の島根県でベンチャー企業である小松電機産業を経営している小松昭夫(54歳)社長が7日、大韓赤十字を訪問、鄭元植総裁に対北支援金 500万円(5,000万ウォン)を伝達した。彼は去年にも独立記念館の運営費として 100万円(1,000万ウォン)を寄付した事がある。

—韓国を訪問して対北支援金を出すという事はそう簡単ではない事だが、韓国と特別な縁があるのか。

“島根県は韓半島と近く、ずっと親近感を持ってきただけだ。また 30、40代前後の世代よりは、この時代を遍く体験した 50代が韓・日関係をほぐす必要があると考えた。”

—韓赤に寄付金を出した理由は。

“日本にも赤十字はある。しかし、北朝鮮日本人妻の故郷訪問事業が中断した以降は、日本赤十字までもが対北支援事業をしていない。民間機構が(日本)政府の機嫌を見ながら支援事業をしない事にあきれてしまい、韓赤を訪ねた。”

—対北支援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動機は。

“人間は誰でも飢えたり、不当に虐待されず、平穩に自由に暮す権利がある。北朝鮮の体制に対する見解が違ふ事は有り得るが北朝鮮の人たちも最小限の人間的待遇は受けなければという考えを持って支援金を出した。”

—これからも対北支援事業をする計画はあるか。

“お金をあげて、食料を与えるのは根本的な解決にはならない。来年から北朝鮮の勤労者を日本で雇用、北朝鮮に経済的援助をし、さらに勤労者たちの意識も変化させる事業を始めるつもりだ。99年から建設作業に入る歴史記念館に北朝鮮の労働力を活用するプランを積極的に検討している。”

島根県が故郷の小松社長は松江工業高卒業後、73年小松電機を創業した高卒出身エンジニアである。85年開発した高速自動シャッターが日本全域で旋風を巻き起こし、ベンチャー企業家として注目を集めている。

문화 일보

1998년 7월 8일 수요일 23

인물 / 바둑

요즈음

“일본 50代가 나서 韓·日관계 개선시켜야”

■ ‘韓赤에 대북지원금 5천만원’ 낸 日기업가 고마쓰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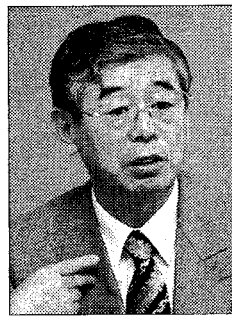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벤처기업인 고마쓰(小松) 전기산업을 운영하는 고마쓰 아키오(小松昭夫·54·사진) 사장이 7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鄭元植(정원식) 총재에게 대북지원금 5백만엔(5천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독립기념관 운영비로 1백만엔(1천만원)을 희사한 바 있다.

—한국을 방문해서 대북지원금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시마네현이 한반도와 가까워 예부터 친근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또 30, 40대의 전후세대보다는 이 시대를 두루 체험한 50대들이 한·일 관계를 풀어야한다고 생각했다.”

—한적에 기부금을 낸 이유는.

“일본에도 적십자사는 있다. 그러



민간기구가 (일본) 정부 눈치를 보며 지원사업조차 하지 않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한적을 찾았다.”

—대북지원작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인간은 누구나 굶주리거나 부당하게 학대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북한 사람

나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사업이 중단된 후에는 일본적십자사마저도 대북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들도 최소한 인간적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원금을 냈다.”

—앞으로도 대북지원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가.

“돈 몇푼 주고 식량을 얼마 주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 내년부터 북한 근로자들을 일본에서 고용,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근로자들의 의식도 변화시키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99년부터 건설작업에 들어가는 시마네현 역사기념관에 북한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마네현이 고향인 고마쓰 사장은 마쓰에공고 졸업 후 73년 고마쓰전기를 창업한 고졸출신 엔지니어이다. 85년 개발한 고속 자동문이 일본 전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벤처기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李美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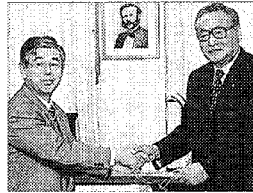
7월8일
수요일
1998년
음 윤5월15일

서울신문

제16746호

THE SEOUL SHINMUN DAILY <20판> 1

日 고마츠전기산업사장 북한주민돕기 성금전달



한국 문화를 둘러보고
국내 협력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방한중인 일본 시마
네현 고마츠전기산업(주)
고마츠 아키오 대표(왼쪽)
가 7일 대한적십자사를 방

문, 鄭元植 총재에게 북한
주민돕기 성금 500만엔을
전달하고 있다.



東亞日報

수요일
7월8일
1998년
음력 윤5월15일

THE DONG-A ILBO

신문 중독구제



日기업가 고마쓰씨 北돕기성금 기탁

일본 고마쓰(小松)전기산업
주식회사 대표 고마쓰 아키오
(小松昭夫)는 7일 대한적십자
사를 방문해 북한주민돕기 성
금 5백만엔(약 5천만원)을
기탁했다. 고마쓰는 인도적 차
원에서 성금을 냈다고 한적 관
계자가 전했다.

경향신문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우) 100-702 (02)3701-1114

경향신문 1998년 7월 8일 수요일 11



日 기업가 북한주민돕기 5천만원 성금

일본 시마네현 고마쓰전기산업(小松電氣産業) 대표 고마쓰 아키오(小松昭夫·왼쪽)가 7일 오전 대한적십자사로 정원식(鄭元植)총재를 방문, 북한주민돕기성금 5백만엔(5천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문화시찰단을 이끌고 방한중인 고마쓰는 지난 95년부터 자사직원 및 협력업체 사장들로 하여금 한국의 문화유적지 및 독립기념관을 관례해 했다.



한국경제

1998년
7월 8일 수요일
韓國經濟新聞



적십자사에 성금 전달

日 고마츠전기 아키오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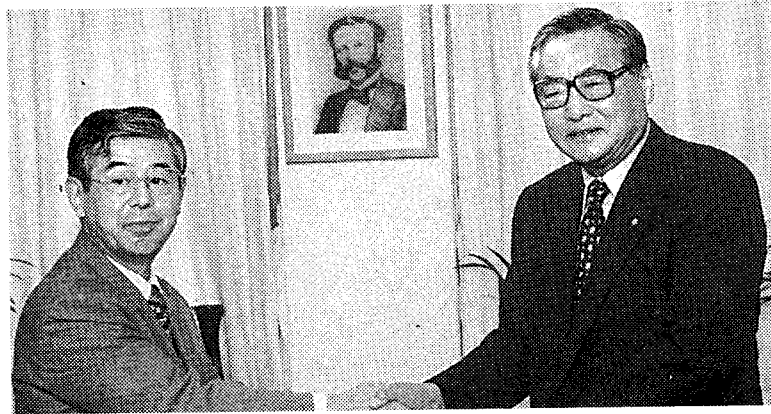
일본 시마네현 고마츠전기산업주식회사(小松電氣産業)대표 고마츠 아키오(小松昭夫·사진왼쪽)씨가 7일 오전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정원식(鄭元植·오른쪽)총재에게 북한주민돕기 성금 5백만엔을 전달했다.

신동열 기자 shins@

매일경제

M A E I L B U S I N E S S N E W S P A P E R

1998년 7월 8일 수요일 **매일경제**



日 中企대표, 북한주민돕기 성금 전달 교마쓰 아키오
일본 시마네현 교
마쓰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왼쪽)는 7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정원식
총재에게 북한주민돕기 성금 500만엔을 전달했다.